

# 무주, 신재생에너지 공모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 사업〉

## 1억5000만원 지원받아... 설천면 목재펠릿공장·3개소 태양광설비 설치

무주군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선정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

과와 유가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으로, 설천면 목재펠릿공장과 안성면주민자치센터, 전동공예테마파크 3개소에 3억 원(국·군비 포함)을 들여 108kW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수급체계 개선과 지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제과 허준철 산업행정 담당은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2016년까지 태양광 276kw, 지열 770kw 등 6개 사업 추진)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 추

진한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의 평균 27.5%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연간 146Mwh의 전력이 생산돼 이산화탄소 68톤 저감, 20년생 잣나무 15,011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발굴·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군내에 산재해 있는 주요 공공시설의 에너지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특교세 8억 확보

## 1군, 사업비 30억원 투자... 건물 3층으로 증축·치매 전담치료실 등 설치

진안군은 10일 지역의 현안인 '진안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요양공간이 부족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 일부가 노인복지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원 건물을 2층에서 3층 규모로 증축하고, 치매 전담치료실 등을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진안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간부들이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

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당초 특별교부세 배정에 부정적이던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진안군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한 군 재정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30억원 중 국비는 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총 18억원이며, 도비 1억원, 군비 11억원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해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며,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완

료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간 일부 노인들이 생활하던 노인복지관 공간은 지역 내 모든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 재정 부담을 덜면서 노인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홍삼축제 셔틀버스 준비 완료

진안군은 10일 오는 19일부터 22일 까지 진안비산 북부에서 펼쳐지는 '2017 진안홍삼축제'의 발이 되어줄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관광객을 맞는 모습이나 말투, 표정 등을 배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버스운전에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제어를 위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진안홍삼 이야기, 홍삼축제 주요프로그램, 행사장 위치, 주차장 등 기본적인 행사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축제기간 내내 셔틀버스 운전사들은 진안홍삼 붉은T셔츠에 빨간 모자로 통일된 복장을 하여 관광객을

미소로 맞이할 계획이다.

4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셔틀버스는 진안터미널부터 진안시장, 군청 앞, 천주교성당 등 읍내를 돌아 행사장까지 운행한다.

19일(목)~20일(금)은 20분 간격으로, 21일(토)은 5분 간격, 22일(일)은 15분 간격으로 총 10여대가 운행된다.

전주에서 진안까지 대중교통은 새벽 6시 5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10~30분 간격으로 총 50대가 운행되며, 진안→부안행과 진안→서울행 버스가 매일 2회씩 운행되고 있다.

이번 진안홍삼축제장에서는 명품 진안홍삼주 시음과 지난해 담근 홍삼주 시음, 하이트랙주와 함께하는 진안홍삼 붉은TDM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번암지역아동센터 파랑새 중창단 콘서트 개최

장수군 번암지역아동센터 소속 파랑새 중창단 어린이들이 '노래와 그림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번암 느티나무 카페에서 양성빈 도의원, 오재만 군의원, 김용문 군의원, 지역 어르신들과 학부모, 아동센터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콘서트를 열었다.

번암지역아동센터는 복권위원회, 사랑의 열매 등의 후원으로 파랑새 중창단과 동글동글 손 따라 그리기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한 장기를 마음껏 선보였다.

김영순 센터장은 "문화원에서 파견된 강사로부터 순수음악을 배우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불멸의 민족혼 논개를 기린다

## '논개따라 삼백리' 행사... 21일 첫 개막식 열려

불멸의 민족혼 논개를 기리고 그의 민족의 얼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논개따라 삼백리'의 행사, 첫 개막식이 열린다.

1593년 6월 남편 최경회 현감을 따라 2차 진주성싸움에 참전했다가 중과부적으로 성이 무너지고 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버린 남편과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가장하여 왜국 승전연에 참석, 왜장 모국춘육조를 진주남강의암바위로 유인하여 함께 투신한 겨레의 여인, 논개!

이 행사는 논개의 탄생지인 장수, 논개가 순국한 진주 측석부,

함양 논개묘지 일대에서 10월 21일 하루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류명희 연출로 논개 진혼무, 김민영 판소리의 논개단가, 고천제 등 공연이 각각 진주, 함양, 장수 등에서 펼쳐진다.

행사를 주관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김순홍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개 정신을 되살려 애국의 정신과 화합으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아울러 영·호남이 소통으로 하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10일 설천면 삼도봉 정상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 무주·영동·김천 삼도가 화합 기원

##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성료

제29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10일 설천면 미천리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화합하고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영동문화원이 주관한 가운데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박보생 김천시장과 박세복 영동군수,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등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김내생 원장 등 3개 시·군 문화원장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초헌례와 아헌례, 중헌례로 삼도화합을 기원하며 산행의 수고를 달랬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봉에 오르는 게 큰 낙"이라며 "이 곳에서 만나면 지역도 말씨도 다 상관없이 가족을 만난 듯 반갑고 참 좋다"고 전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으며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 공동발전 사업의 기반이 되면서 타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주와 영동, 김천시는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농어촌생활수용소 개발 등의 지역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2016 지역발전사업 생활권 운영 우수기관)을 받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건강체조 발표회 마이산 건강걷기대회 개최

진안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 마이산북부 마이몬테마공원 특설무대에서 건강체조 발표회와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로 오후 1시 건강체조 발표회와 오후 3시 마이산 건강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건강체조 발표회는 어르신들이 일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어르신들의 축제로,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도록 11개 읍면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다.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는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군보건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건강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걷기코스는 주 행사장인 마이몬테마공원 행사장을 출발하여 산악초타운 산책로 3km 구간으로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다.

현재 90개 마을 걷기 동아리회원들이 참여 예정으로 걷기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걷기대회 참가를 원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간편한 복장으로 행사 당일 행사장인 마이몬테마공원 행사장으로 오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산악초타운 앞에서 홍보용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430-8512)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노인복지관, 한국지엠 한마음재단 차량지원사업 선정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은 10월 2017년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차량 기증식에서 황지나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무총장, 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체시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웨보레 스파크 차량이 전달됐다.

올해 한마음재단의 차량기증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전국 227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신청을 받아 총 20개 기관을 선정, 이 중 진안군노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차량을 기증받게 되었다.

이번에 기증받은 웨보레 스파크 차량은 관내 위기가구 어르신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니스	